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연구

박근태*

국문 요약

영선동식토기는 신석기시대 전기단계(B.C. 4,500~3,500)의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자돌·압인·압날문토기이다.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중 온평리유적, 저류지유적에서 확인된 압인문토기는 끝이 둥글고 넓은 시문구로 장식한 토기로 횡주어골문에서 복합문양, 수직문양 등으로 독특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기형이 호형에서 발형으로 변화하는 등 한반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제주도식 영선동식토기'라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압인기법의 수직문·중복수직문·횡주어골문과 수직문의 복합문토기는 호형토기 기형의 횡주어골문토기가 유입된 이래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변화하면서 문양의 간략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영선동식토기는 3단계의 전개양상을 보이며 변화한다. I 단계는 자돌문계토기 중심의 영선동식토기가 유행하고, II단계는 횡주어골문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순각목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이다. III단계는 횡주어골문이 퇴화하여 수직문이나 복합문으로 변화하게 되며 구순각목은 단독문에서 복합문으로 변화하고 삼각집선문이나 단사선문, 사각자문의 세침선문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제주도 영선동식토기는 자돌 압날문토기의 전통 속에서 남해 서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횡주어골문의 호형토기나 발형토기가 유입되면서 전개된다.

그리고 공반되는 석기조합상은 수렵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식료가공구인 갈돌, 갈판, 고석, 석인석기의 비중이 높고 어망추가 확인된다. 따라서 제주

*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도 신석기시대 전기단계 거주집단의 생업경제는 채집활동이 중심이 되고 어망에 의한 어로활동이 부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신석기시대 전기, 영선동식토기, 횡주어골문토기, 채집, 어로

I. 머리말

우리나라의 토기문화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산리식토기는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고산리식토기를 시작으로 초기 용기문토기, 전기 영선동식토기, 후기 봉계리식토기, 만기 이중구연토기로 전개된다. 비록 남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중기단계의 표식적인 태선침선문토기의 출토는 없으나 남해안지역 토기전개양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영선동식토기는 보편적으로 신석기시대 전기단계(B.C. 4,500~3,500)의 자돌·압날·압인문토기를 일컫는 토기로 수가리패총 조사자에 의해 처음 설정되었다(부산대학교 박물관, 1981: 142).¹⁾

발굴조사 당시는 영선동패총에서 출토된 압인문토기가 신석기시대 전기의 표식적인 토기로 영선동식토기를 상정하였지만 이후 여러 유적에서 압인문토기 이외에 자돌·압날문을 포함한 다양한 문

1) 최근에 영선동식토기의 범주는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형태와 문양대가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면서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글에서는 제주도 또한 신석기시대 전기에 남해안지역과 동일 문화권을 가정하여 제주도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넓은 범주에서 영선동식토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양대의 토기류가 출토되면서 전기단계의 토기설정에 있어 초출시기와 편년, 전개양상 등 많은 부분이 구체화되고 연구자간에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영선동식토기를 정리하여 초출 및 유입시기, 전개과정 등 신석기시대 전기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여 제주도 신석기시대 전기 일면의 문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그간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선동식토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영선동식토기의 범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와 제주도의 영선동식토기의 기형, 문양대 등을 비교하여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초출 및 유입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 검토

1. 연구사 검토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영선동식토기의 변화양상에 대해 廣瀨雄一, 김장석, 임학중, 하인수, 田中聰一, 김은영, 이동주, 이상균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용기문토기에서 영선동식토기로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廣瀨雄一은 영선동식토기의 가장 이른 형식인 영선동 I 식의 자돌문토기가 동해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용기문토기와는 계통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廣瀨雄一, 1985: 61). 김장석은 오산

리유적의 자돌문토기가 용기문토기의 기형과 문양배치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면서 동북지역의 자돌문이라는 시문방법만을 채용하였으며 이것이 남해안으로 파급되어 동삼동, 상노대도 등지에서 보이는 자돌문토기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김장석, 1991: 60-65). 하인수는 영선동식토기 문화는 재지계인 침선문, 세단선문, 조압문토기를 바탕으로 한반도 동북지역의 토기문화의 영향과 오산리식토기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재지계와 외래계의 이원적인 양식구조를 가지면서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즉 영선동식토기를 용기문토기 말기에 영남지역으로 유입된 동북지방 자돌문계토기 문화가 기존 용기문토기 문화와 융합하면서 재지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선동식토기는 단독 문양대를 갖는 단독문에서 복합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문양형태나 시문수법에 따라서 각기 독자적으로 다양성을 가지면서 변화해 가는 것도 있다고 보았다(하인수, 2006: 68-69). 田中聰一은 변화와 발명은 모방모델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영선동식토기의 출현 또한 앞시기의 용기문토기 종말단계의 양상에 나타나는 자돌문과 침선문의 문양수법에서 찾고 있다(田中聰一, 2000: 190-191).

이에 반해 임학중은 남해안지역 유적의 층위별 출토양상을 분석하여 영선동식토기의 편년을 압인문이 중심이고 세침선문과 구순각목이 많은 단계에서 압날문이 급증하고 구순각목이 감소하는 단계로의 변화한다고 하였다. 압날문에 자돌문과 단사선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돌문에서 압인문으로의 변화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임학중, 1993). 또한 김은영은 영선동식토기의 압인기법의 출현은 용기문토기 말기의 교호각목용기대문토기와 유사용기문토기 단계로 보고 초기 영선동식토기의 문양기법을 압인문, 점토뉴흔문(점토대접합흔), 침선과 자돌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양수법과 기형적

인 측면에서 오산리식토기의 영향에 의한 영선동식토기의 출현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김은영, 2010: 65-67).

이상의 영선동식토기의 출현과 관련한 연구사를 종합해보면 동북 지역으로부터의 자돌시문기법이 후기 단계의 남해안 용기문토기문화에 영향을 주어 영선동식토기 성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측면과 용기문토기 말기 단계의 교호각목용기문토기나 유사용기문토기에서 자체적으로 영선동식토기가 성립되는 것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된 남해안지역 영선동식토기의 변화에 대해서 하인수는 3단계로 나누고 I 단계는 동북지역의 자돌문계토기 영향으로 영남지역에 자돌점열문토기와 재지계의 세침선문, 조압문토기 등을 지표로 하는 토기문화가 성립되고 용기문토기가 완전히 소멸한 시기이다, II단계는 외래계토기군이 재지화되어 영선동식토기가 완성되는 시기로 자돌문, 세침선문, 조압문 등이 상호 조합되면서 복합문토기가 출현하고 자돌문토기에서 파생된 압인기법의 소형 횡주어골문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이다. III단계는 압인횡주어골문이 퇴화하면서 침선상의 대형압인횡주어골문으로 바뀌고 문양의 시문단위가 커진다. 그리고 조압문토기는 사라지고 세침선문토기는 격자문, 사각 혹은 능형집선문형태로 존속한다. 따라서 문양의 단순화 내지 정형성의 결여, 복합문의 감소, 시문단위 및 범위의 확대가 III단계의 특징으로 중기의 태선침선문토기와 계통적으로 연결된다고 추정하고 있다(하인수, 2006: 65-73). 田中聰一은 형식학적인 분류방법을 통해 4단계의 변천을 상정하고 있다. I 단계는 용기문토기 종말단계의 자돌문과 침선문 시문단계, II단계는 횡대구획의 문양대가 오산리식토기의 영향으로 출현하고, III단계는 침선문과 압인문이 중심이면서 자돌점열문과 조압문이 횡대구획으로 나타난다. IV단계는 압인문의 침선화와 연속자돌(압날단사선문)의 출현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田

中聰一, 2000: 190-211). 그러나 이는 형식학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은영은 영선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에 따라 3단계(고단계, 중단계, 신단계)로 변화를 상정하였다. 고단계는 소형압인횡주어골문이 대표되며 환저의 기형이 부산 통영지역에서 성립하여 남부지역과 제주도, 서해안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각 지역에서 발형, 완형, 호형의 세트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중단계는 기형이 첨저로 바뀌고 문양으로 조압문과 점열문이 유행한다. 신단계는 영선동식토기는 소량만 출토되는 객체적인 존재로 횡주어골문과 거치문, 사격자문 등 한정된 문양만 남는다. 이 단계에 남부지역에 확산된 압날단사선문토기는 수가리식토기에 압인단사선문을 갖는 구분문토기로 계승되어 영선동식토기의 계통을 이은 태선침선문토기와 병존한다(김은영, 2010: 91-92).

전체적으로 영선동식토기의 문양은 용기문토기와 유사하고 단일 시문되는 단계에서 태선침선문토기와 유사하고 복합시문되는 단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문양요소 중 구순각목은 압인문계 토기의 횡주어골문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이른 시기에 유행하다가 점점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영선동식토기 후반에 압인횡주어골문의 침선화와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밀집단사선문 등의 문양대 추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임학중, 1993; 하인수, 2006: 69-73; 이동주, 1996: 174-177; 이상균, 1997: 30, 77-79; 田中聰一, 2000: 190-211). 그리고 영선동식토기의 출현은 오산리식토기의 자돌문 문양기법의 유입에서 찾거나 앞 시기 용기문토기의 말기 양상인 유사용기문토기나 교호각목용기문토기에서 찾고 있다.






2. 남해안 영선동식토기의 설정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 기종은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완형(盥形)토기, 주구(主口)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부형태는 원저나 첨저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원저의 기형이 첨저에 비해 문양수법의 선후관계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영, 2010: 70-72). 그리고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영선동식토기 구연부의 구경을 복원하여 그 수치를 중심으로 중심값을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심)발형토기 구경의 중심값은 15~20cm와 35~40cm에 있으며 완형(盥形)토기의 구경은 15~20cm에 있다. 그리고 호형토기의 구경은 8~10cm, 주구토기의 구경은 15~20cm에 중심값이 위치하고 있다(田中聰一, 2000: 177-179).²⁾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영선동식토기는 자돌문, 압인문, 압날문, 조압문, 세침선문, 점토대접합흔, 구순각목이 시문되며 각 시문방법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시문수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2) 영선동식토기의 자료가 대부분 파편이기 때문에 기고나 동체대경, 저경의 수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빈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경의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그나마 많은 편이어서 구경의 수치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표 1>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 시문 종류

순번	시문 종류	시문기법	도판
1	자돌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해 주로 구연 상단부 기면에 수직 혹은 비스듬히 눌러 찍은 토기이다. 대체로 점렬문의 형태로 능형문, 평행문, 산형문, 복합문이 시문된다.	
2	압인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해 기면에 눌러 당기는 수법으로 시문한 토기이다. 주로 횡주어골문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사선문, X자문, 능형집선문 등이 시문된다.	
3	압날	끝이 세장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기면에 눌러 찍어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단사선문, 평행사선문의 형태로 확인된다.	
4	조압	엄지와 검지의 손톱 끝으로 기면을 집어서 시문한 토기로 손톱 문양이 새겨지고 집힌 부분의 기면은 융기가 된다. 문양은 구연부 바로 밑으로 횡방향의 2~3조로 시문하거나 다른 문양과 복합문 형태로 시문된다.	
5	세침선	끝이 가늘고 뾰족한 시문구로 기면에 그어 문양을 시문한 토기이다. 압인문에 비해 시문 깊이가 얇고 가는 것이 특징이다. 사격자문, 삼각집선문, 능형문, 복합문 등의 형태로 시문된다.	

순번	시문 종류	시문기법	도판
6	점토대 접합흔	토기 성형시 구연부 외면에 점토대 접합흔을 물손질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고 그 위에 침선을 시문한 토기이다. 횡방향의 점토대접합흔 위에 종방향의 사격자문, 삼각집선문, 수직문의 단선문이 시문된다.	
7	구순각목	무문양이나 유문양토기의 구순부에 봉이나 주걱과 같은 시문구나 손가락으로 눌러 새긴 토기로 단독문으로 시문되거나 다른 문양과 복합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료 : <표 1>의 도판은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출간된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 I’에서 인용하였다.

이러한 시문방법으로 장식된 영선동식토기는 구순부 바로 밑에서부터 시문되며 시문부위가 구연부에 한정되는 것이 특징으로 후기의 봉계리식토기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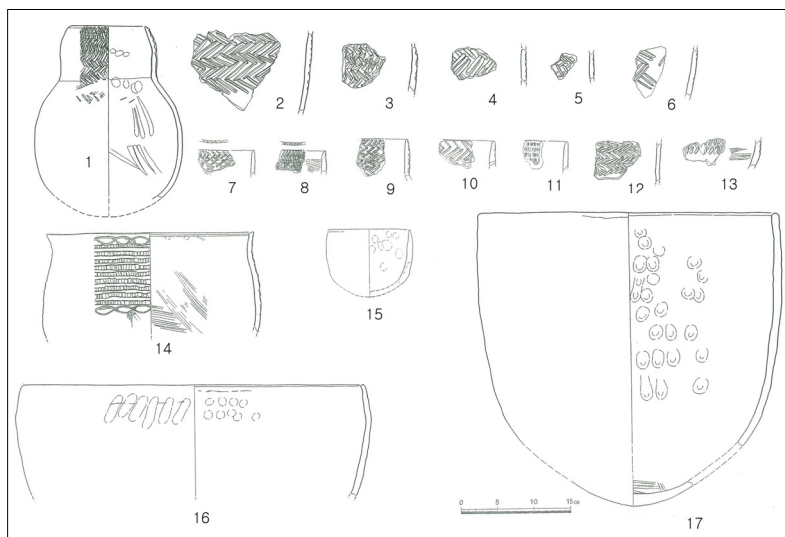
3. 남해 서부지역의 영선동식토기

여기에서 다루는 남해안지역은 제주도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해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한다. 영선동식토

기 단계의 지역별 현황을 볼 때 하동 이서(以西), 여천지역이 유물의 출토양상이나 특징이 제주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서도패총의 제주도산 태토로 제작된 토기로 볼 때 교류를 통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가. 목도패총

목도패총(국립진주박물관, 1999)은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에 위치하며 해안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섬진강의 우안 충적지에 형성된 패총유적이다. 층위는 패각층, 혼토판층 등으로 구성된 4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각 층에서 주거지, 수혈유구, 노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3층과 4층에서 무문양토기와 함께 영선동식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상층인 2층에서 봉계리식토기가 확인되어 층위상으로 무문양토기를 제외한 영선동식토기 단일층이 형성된 유적이다.



[도면 1] 목도패총 출토 유물(1~13 : 4층, 14~17 : 5층)

나. 여서도패총(목포대학교 박물관, 2007)

여서도패총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섬의 북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동쪽 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층위는 5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유물은 주로 5층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용기문토기, 압인문토기, 자돌문토기, 무문양토기 등의 토기류와 결합식납시 축, 석부, 찻개, 지석 등의 석기류, 자돌구, 장신구, 작살 등의 골각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 중 무문양토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기문토기를 비롯한 토기에서는 현무암 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된 토기가 확인되어 제주도와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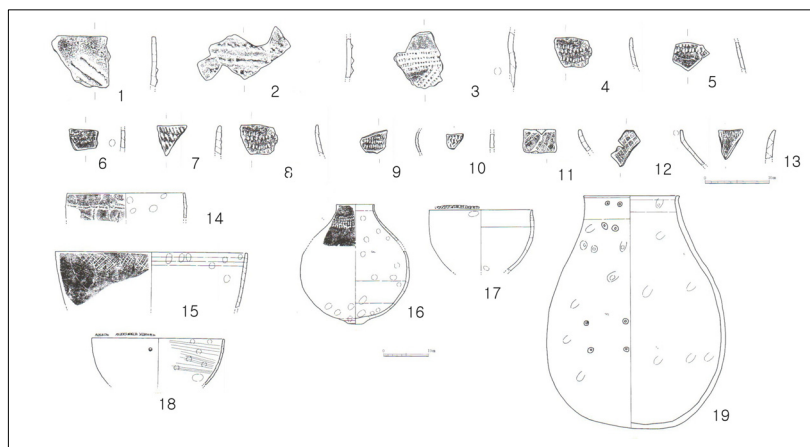
다. 돌산 송도패총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하며 유적의 층위는 4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3층에서 화덕시설을 갖춘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 1990) 유물은 최하층인 4층에서 용기문토기, 3층에서 용기문토기, 영선동식토기, 태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 외에 팽이, 돌보습, 결합식납시바늘, 그물추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절대연대는 4층과 3층 주거지 바닥에서 채집한 숯으로 측정한 결과 보정연대가 $4,285 \pm 195 \text{ B.C.}$ 와 $4,270 \pm 200 \text{ B.C.}$ 로 확인되었다. 3층에서 확인된 태선침선문토기는 남해서부 분포권의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출토량도 매우 적다.

라. 안도패총

여수시 남면 안도리에 위치하며 유적의 층위는 패각층, 혼사력패층, 사력층으로 구분된다(국립광주박물관, 2009). 패각층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며 유물은 주로 이 패각층에서 출토되었다. 조기의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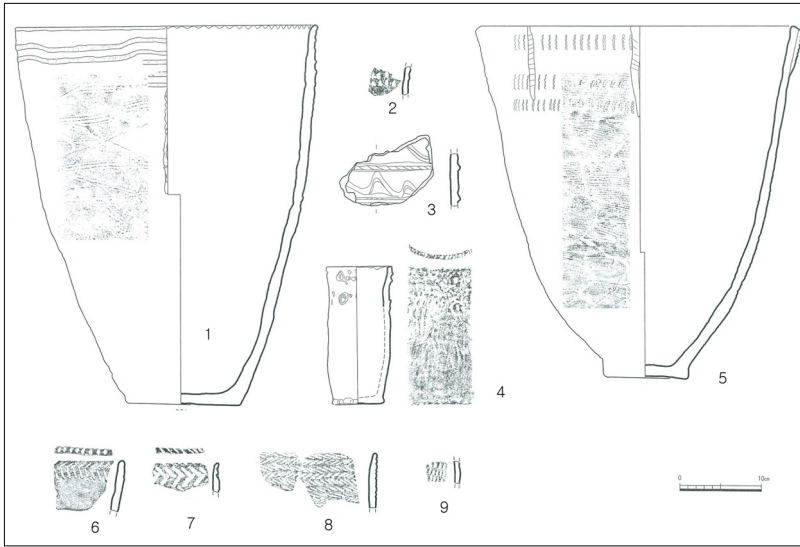
문토기와 결합식늪시바늘은 최하층인 패각층 1층에서 나타나며 영선동식토기인 압인문토기는 2층 이상에서만 출토되었다. 침선문토기는 전형적인 중기단계의 태선침선문토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반구연에 구연으로부터 2~3cm 정도의 공백을 남겨두고 시문되는 봉계리식토기가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사력층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2] 여서도패총 5층 출토

남해 서부지역의 유적 중 해안에 위치한 도서지역의 유적인 여수 안도패총에서는 용기문토기와 영선동식토기, 봉계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며 완도 여서도패총에서는 용기문토기와 영선동식토기, 무문양토기가 확인되었다. 해안에서 10km 정도 내륙의 강안에 위치한 목도패총에서는 영선동식토기와 무문양토기가 3층과 4층에서 출토되며 상층인 2층에서 봉계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상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해 서부지역의 영선동식토기는 목도패총과 같이 영선동식토기 단일층을 형성한 유적도 있지만 용기



[도면 3] 안도 패총 유물(1~5:1층(하층), 6~9:2층(상층))

문토기와 공반하거나 무문양토기나 봉계리식토기와 섞여서 출토되고 있다.

남해 서부지역의 유적에서 유사용기문토기나 교호각목용기문토기, 점토대접합흔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돌산 송도패총에서 일부 태선침선문토기가 확인되었지만 목도패총, 안도패총, 여서도패총에서는 용기문토기, 영선동식토기, 봉계리식토기가 출토되는 반면 중기 단계의 태선침선문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현상은 제주도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여서도 패총에서 출토되는 용기문토기, 무문양토기, 자돌문토기에는 제주도산 현무암석립이 보강재로 혼입된 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용기문토기 단계 뿐만 아니라 영선동식단계에서도 제주도와 지리적 여건상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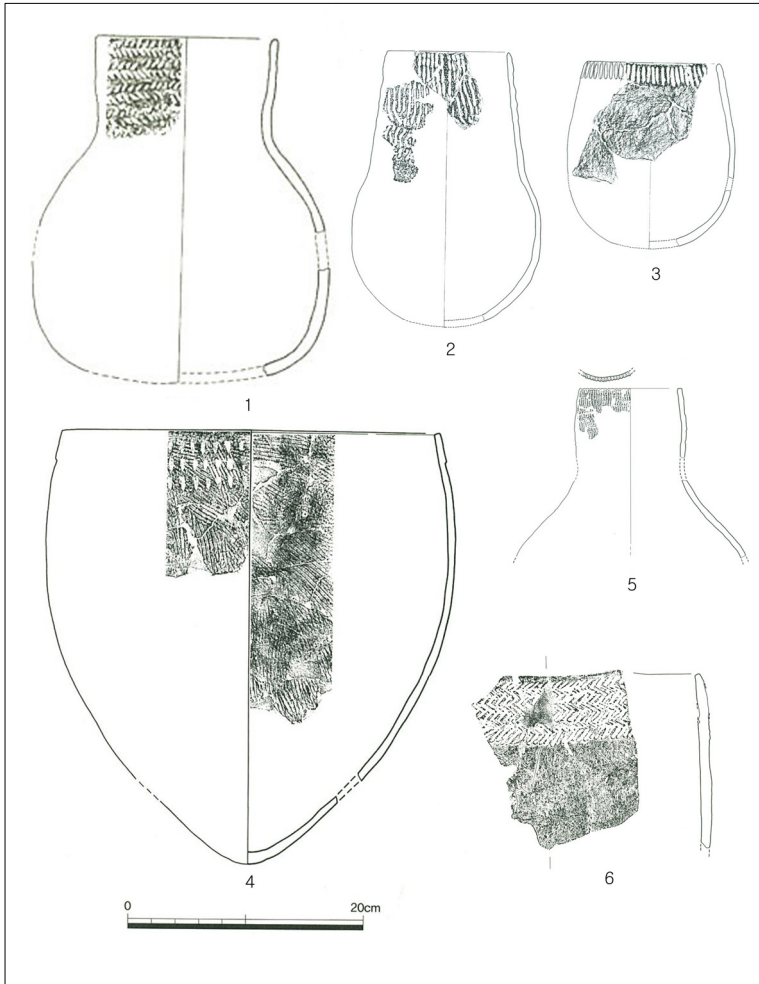
III.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설정

1. 기형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 기종은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완형(盥形)토기, 주구(主口)토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제주도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만 확인될 뿐 완형토기와 주구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된 영선동식토기 자료 가운데 기형이 복원될 정도로 출토된 개체수가 수점에 불과하여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에서 확인된 기형복원되는 영선동식토기는 [도면 4]에서처럼 발형토기와 호형토기이며 저부형태는 원저와 첨저형태이다. 또한 호형토기의 경우 구경이 10~15cm이며 발형토기는 구경이 11cm의 소형[도면 43]과 32cm의 대형토기[도면 44]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영선동식토기 가운데 호형토기와 발형토기의 구경 중심값과 유사하다.

고산리동굴유적 출토품[도면 41]은 목도패총의 호형토기[도면 1-1]와 비교될 수 있어 남해 서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압인횡주어골문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온평리유적 호형토기[도면 42]처럼 목부분과 어깨부분의 꺾임이 약해지는 호형토기로 변화한다. 그리고 시문방법도 횡주어골문이 덜 정교해지고 수직문과 복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호형토기의 특징과 시문 수법이 퇴화하면서 소형의 발형토기[도면 43]로 기형도 변화되고 문양도 횡주어골문이 사라지면서 수직문과 중복수직문[도면 6-12~14]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4] 제주도 출토 영선동식토기 기형복원 자료(1:고산리동굴 유적, 2·3:온평리유적, 4·6:성읍리유적, 5:삼양유원지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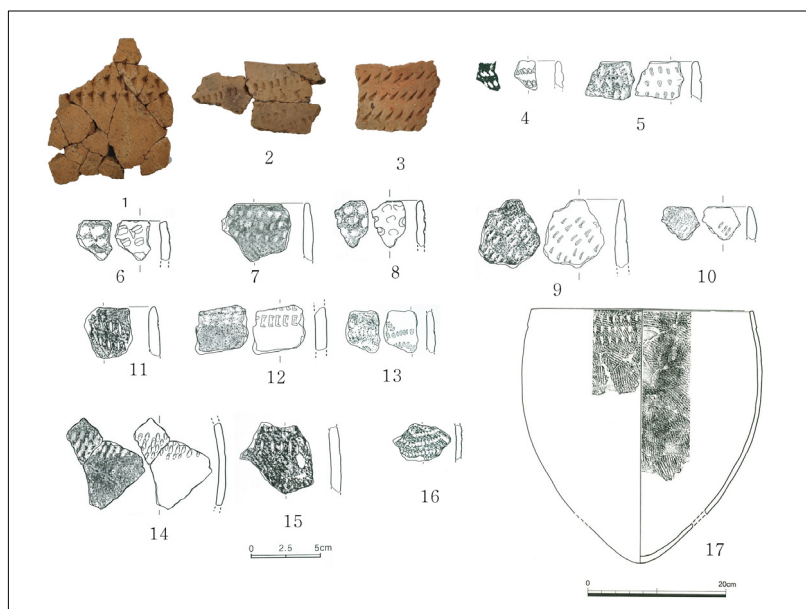
2. 문양수법

1) 시문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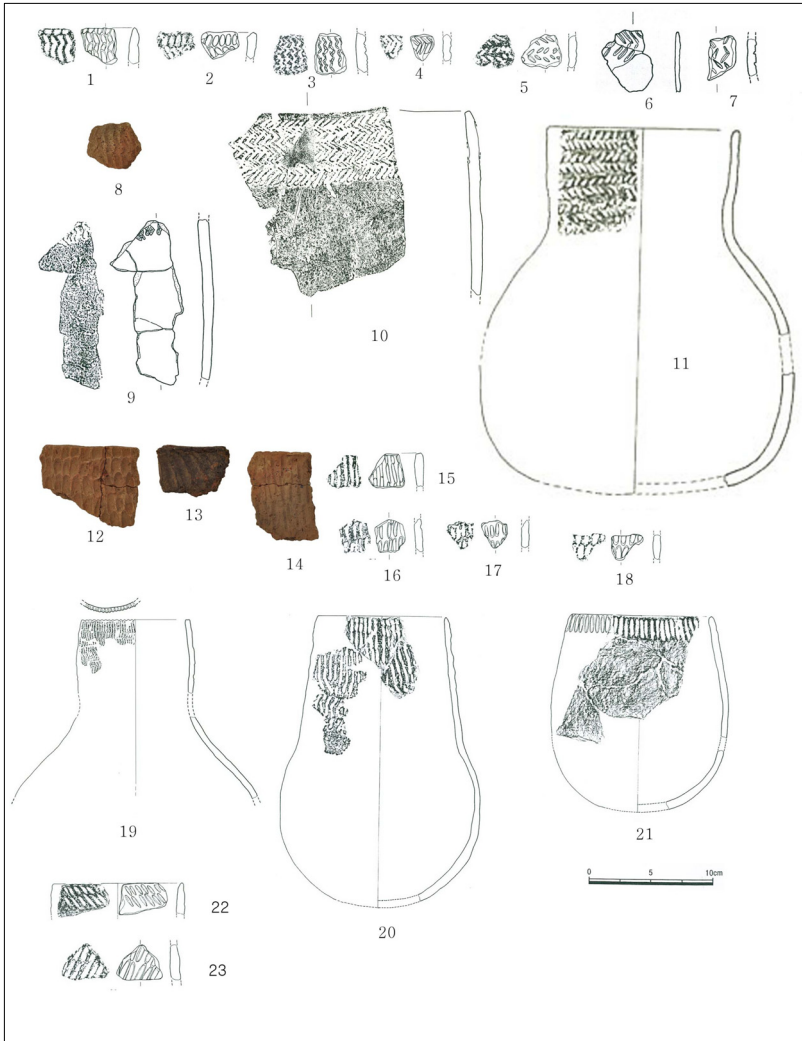
(1) 자돌(압날)문([도면 5])

시문구의 끝이 원뿔이나 삼각뿔처럼 뾰족한 것, 둥근 것으로 기면에 수직으로 찌른 것, 비스듬히 찢러 시문한다. 문양형태는 주로 평행문형태로 구연부에만 시문되는 경우가 많다.

출토유적으로 저류지유적, 성읍리유적, 하도리유적, 사계리유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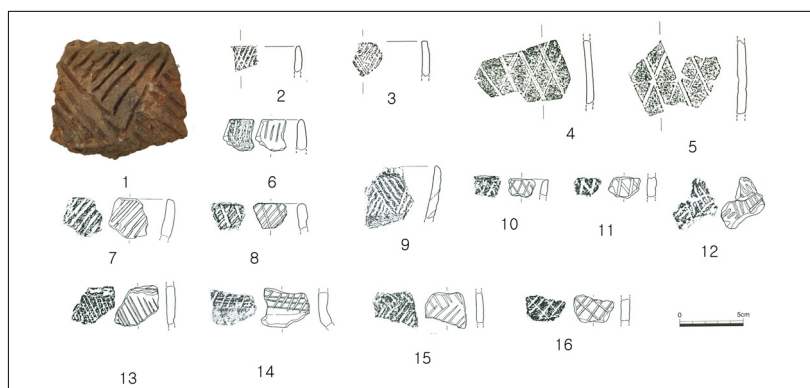
[도면 5] 자돌문계 영선동식토기(1~3:저류지유적, 4:하도리유적, 5~16:사계리유적, 17:성읍리유적)



[도면 6] 압인문계 영선동식토기(1~5:온평리유적, 6·7:용담동유적, 8·12~14:저류지유적, 9:하도리유적, 10:성읍리유적, 11:고산리동굴유적, 15~18·20~23:온평리유적, 19:삼양유원지유적)

2) 압인문([도면 6])

호형토기나 발형토기에 주로 횡주어골문이 시문되며 사선문과 능형집선문, 수직문을 시문한 것도 있다. 제주도의 특징적인 영선동식 토기라 할 수 있는 수직문을 단독으로 겹쳐 시문하거나[도면 6-12~15] 횡주어골문과 복합하여 시문한[도면 6-19·20] 경우가 있다. 횡주어골문은 성읍리유적, 하도리유적, 용담동유적, 저류지유적, 온평리유적, 고산동굴유적에서 확인되며 횡주어골문이 완전하게 퇴화된 것으로 보이는 수직문은 온평리유적, 저류지유적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횡주어골문이 변화하는 중간단계인 횡주어골과 수직문의 복합문이 시문된 것은 온평리유적[도면 6-20]과 삼양유원지유적[도면 6-19]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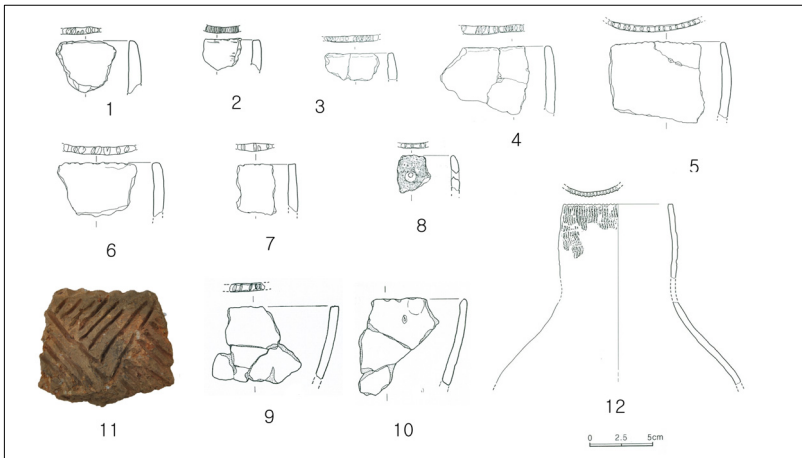
[도면 7] 세침선문계 영선동식토기(1:저류지유적, 2~5:성읍리유적, 6:사계리유적, 7~16:온평리유적)

3) 세침선문([도면 7])

끝이 뾰족한 시문구로 기면에 선을 그어 시문한 것으로 삼각집선문, 사격자, 능형문, 조우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출토유적으로는 저류지유적, 온평리유적, 사계리유적이 있다.

4) 구순각목([도면 8])

무문양토기에 단독으로 시문되거나 세침선문토기, 압인형주어골문토기에 복합문형태로 추가해서 시문된다. 구순각목은 영선동식토기 단계 전반에 걸쳐서 시문되는 문양으로 출토유적으로는 저류지유적, 용담동유적, 사계리유적, 삼양유원지유적이 있다.



[도면 8] 구순각목문예 영선동식토기(1~8:사계리유적, 9·10:용담동유적, 11:저류지유적, 12:삼양유원지유적)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문양시문 방법은 자돌(압날)기법, 압인기법, 구순각목, 세침선문의 기법으로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점토대접합흔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2) 문양대

(1) 횡주어골문

주로 압인문토기에 시문되며 일부는 세침선문토기의 문양대로도 형성되고 있다. 일부 횡주어골문토기의 문양대는 온평리유적이나 저류지유적에서 확인되는 수직문과 압날점열문의 시문방법과 유사하며 복합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횡주어골문과 수직문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廣瀨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데 횡주어골문이 퇴화하면서 수직문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廣瀨, 1985).

(2) 삼각집선문

세침선문토기의 문양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삼각집선문은 초창기의 압날점열문토기³⁾의 문양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3) 사격자문

세침선문토기에 주로 장식되는 문양대로 사선으로 3~4조의 단사선이 시문되어 형성된다. 구연부 바로 밑에서부터 시문되지만 파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문양대를 확인할 수 없다.

(4) 단사선문

3) 고산리유적, 김녕리유적, 강정동유적, 삼화지구유적에서 고산리식토기와 공반되는 압날점열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삼각집선문과 능형문, 수직문이 복합되어 기면전체에 시문되며 강정동유적의 압날점열문토기는 토기 바닥부분에도 시문되어 영선동식토기의 압날점열문토기와는 차이를 보인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동양문물연구원, 2009.).

주로 압인문과 세침선문토기의 문양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로 구순부의 바로 밑에서부터 1열 또는 2열의 형태로 시문된다. 사계리 유적[도면 7-6]과 온평리유적[도면 7-7]에서 출토되었다.

(5) 점열문

압날이나 자돌기법에 의해 시문된 점열문은 문양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부터 3~4조로 기면 둘레를 시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계리유적의 점열문토기[도면 5-14]는 여서도패총의 V층 점열문토기[도면 2-16]와 문양대나 기형에서 유사하다.

남해안지역의 영선동식토기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편년되는 자돌·압인문계 토기로 원저 혹은 첨저의 (심)발형·호형·완형(泓形)·주구(主口)토기 등의 기종구성을 이룬다. 문양은 자돌(압날)·압인·침선문 등으로 구성된 문양이 구연부 주변에만 시문되고 구순각목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에서 확인된 영선동식토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종구성에서는 (심)발형·호형의 기종구성을 이루고 있다. 문양은 자돌(압날)·압인·침선문이 시문되며 구순각목은 세침선문과 압인횡주어골문에 복합문으로 시문된 예도 있지만 주로 무문양토기에 단독문으로 시문된다.

용기문토기와 공반되는 유적에서는 자돌문토기류가 많은 반면에 영선동식토기류만 확인되는 유적에서는 세침선문과 압인문토기 위주로 구성되며 후기의 봉계리식토기와 공반되기도 한다. 제주도 영선동식토기는 남해안 지역과 비교할 때 기종과 문양수법에서 단순화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만의 독특한 기형과 문양수법을 보이기도 하여 제주도의 지역성도 확인된다.

IV. 유적 검토

1. 유적

영선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제주도내 유적은 온평리유적, 고산리동굴유적, 저류지유적, 사계리유적, 용담동유적, 하도리유적, 성읍리유적, 삼양유원지유적이 있다.

1) 온평리유적

유적(제주문화예술재단, 2006a)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위치하며 성산~표선간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포함층내에서 점열문, 횡주어골문, 삼각집선문, 격자문, 사선문, 능격문, 조우문, 너문이 시문된 압날·압인문토기, 침선문토기, 구연부 공백 문양시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로는 타제석기, 갈돌, 갈판, 공이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압날·압인문토기와 침선문토기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토기로 횡주어골문과 점열문, 삼각집선문 등이 시문되었다. 토기의 양상으로 볼 때 유적의 시기는 주로 신석기시대 전기로 편년되며 일부 구연부 밑으로 일정부분 공백을 두어 시문되는 봉계리식토기가 확인되어 후기 단계 문화층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도리유적

유적(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위치하며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부지 중 야외체육시설부지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흑색점토층 상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압인수법의 단사점열문과 어골문

이 구연부에 한정 시문되어 있다.

3) 고산리동굴유적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전답동의 경작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동굴주거유적이다. 동굴의 규모는 입구 길이 6.5m, 높이 1.2m이며 'S'자형의 터널형구조이다. 유물은 용기대문토기와 압인횡주어골문호형토기, 조흔문토기가 확인되었다. 동굴 내부 표토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유적의 성격이나 시기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신석기시대 초기~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동굴주거유적으로 판단된다. 횡주어골문호형토기는 남해안 지역의 호형토기와 기형이나 시문수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4) 아라동 병문천저류지유적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은 제주시 아라동 중산간지역의 병문천변에 위치하며 지방하천 수해복구저류지 공사구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초창기~전기 단계에서 해당하는 수혈유구와 야외노지가 30기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토기는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영선동식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석기는 석촉을 비롯한 각종 타제석기와 공이석기, 발화석이 확인되었다. 영선동식토기는 삼각집선문, 단사선문, 횡주어골문, 능형문, 격자문이 압인문, 압날문, 세침선문의 수법으로 시문되었다. 기형은 발형과 호형이며 저부는 원저나 환저일 것으로 추정된다.

5) 사계리유적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하며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3구역)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석렬유구, 수혈유구, 집석유구, 소토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응회암층 상부(3,4층)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단계의 봉계리식토기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응회암층 하부(7,8층)에서는 용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석기는 공이, 흙돌, 굴지구,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6) 용담동 어영유적

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5)은 제주시 용담동 어영마을에 위치하며 제주국제공항 확장부지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수혈유구에서 압인형주어골문토기와 무문양토기, 구순각목토기, 원저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청동기시대로 설정하였지만 유물상으로 볼 때 영선동식토기 단계의 유구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7) 성읍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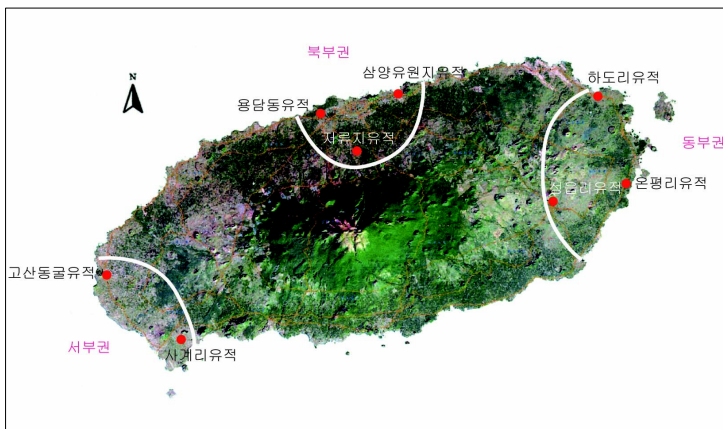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영주산 북서쪽에 위치하며 성읍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2기와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토기편 14점이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압인어골문, 점열문, 삼각집선문, 사격자문, 조우문 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압인어골문토기를 신석기시대 전기단계로, 그 외 점열문토기 등은 신석기시대 후기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격자문[도면 7-2·4·5], 삼각집선문[도면 7-3], 점열문토기[도면 5-7]도 시문 위치로 볼 때 영선동식토기로 판단된다.

8) 삼양동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유적(제주문화예술훈단, 2006c)은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하며 삼양유원지 조성부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수혈유구, 적석유구,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물로는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압인횡주어골문토기, 조흔문토기, 조우문토기의 토기류와 성형석기와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압인횡주어골문토기의 기형은 호형토기로 시문수법이 온평리유적 출토품과 유사하여 구연부에서는 수직으로 시문되다가 경부쪽으로는 어골문의 형태를 하고 있어 시문수법이 퇴화된 것으로 보인다([도면 8-12]).

2. 유적의 입지와 환경

유적의 입지로 볼 때 해안가 유적과 중산간지역에 분포하는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안가 유적은 해발 5~30m의 해안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과의 이격거리는 최대 2km이다. 유적은 온평리유적, 하도리유적, 삼양유원지유적, 용담동유적, 사계리유적이



[도면 9]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출토유적

있다. 후자의 중산간지역의 유적은 해발 200~370m의 오름 등이 위치한 제주도 중산간일대로 하천을 끼고 형성되어 있다. 유적으로는 저류지유적과 성읍리유적이 있다. 중산간지역의 유적은 해안가 유적과 거리상으로는 불과 1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냥이나 채집을 위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바다자원 및 해안에 분포하는 용출수를 이용하는 생활근거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분리된 생활영역이 아니라 생업경제체계안에서 생업의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선동식토기 단계의 제주도 유적 분포권은 크게 동부지역권, 북부지역권, 서부지역권으로 구분된다([도면 9]).

그리고 유적의 종류에 따라 야외유적과 동굴유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굴유적은 고산동굴유적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야외유적이다. 유구가 확인된 사계리유적과 용담동유적, 삼양유원지유적, 저류지유적에서는 원형이나 부정형의 수혈유구, 소토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영선동식토기 단계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된 예는 없다.

주거방식은 제주도의 경우 대체로 신석기시대 단계에서는 야외유적의 경우 주거지 보다는 소형의 수혈유구나 야외노지로 추정되는 소토유구나 수혈식집석유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굴내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⁴⁾들이 확인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주취락보다는 계절이나 생업활동에 의해 이동식생활방식을 영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제주도의 천연동굴이나 바위그늘 내부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이 확인된 곳은 고산리동굴유적, 신천리 마장굴유적, 한들굴유적, 북촌리바위그늘유적, 역수동 바위그늘유적 등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북촌리바위그늘유적 외에 전반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부 표토에서 수습된 유물이기 때문에 주거공간이나 무덤, 패총 등의 특수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영선동식토기의 전개양상과 생업활동

1.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전개

제주도에서 확인된 영선동식토기는 용기문토기와 공반되거나(사계리유적, 저류지유적) 후기 단계의 봉계리식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온평리유적, 성읍리유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해안지역의 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으로 영선동식토기가 긴 시간 폭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남해 서부지역의 유물이나 유적 편년과 비교하여 시기를 설정하고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영선동식토기의 문양시문 수법 중 자돌·압날기법은 이미 초창기 단계인 고산리식토기와 공반되는 토기 중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용기문토기와 공반되는 사계리유적, 저류지유적에서는 자돌문토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영선동식토기 단독으로 출토되는 온평리유적에서는 압인문토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영선동식토기 가운데 자돌문토기가 압인문토기에 비해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도 영선동식토기는 이러한 자돌 압날문토기의 전통 속에서 남해 서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횡주어골문의 호형토기나 발형토기가 유입되면서 전개된다.

영선동식토기의 시기설정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영선동식토기가 출토된 유적 가운데 절대연대가 측정된 곳은 용담동유적 수혈 2-1호 유구의 $4,750 \pm 80 \text{ B.P. (B.C. 3,500)}$, 사계리유적 8층의 B.C. 4,010이다.

제주도내 유적의 절대연대 측정값과 남해 서부지역의 목도패총 IV층($4,910 \pm 130 \text{ B.P.}$), 안도패총 II층(B.C. 2,720~B.C. 3,790), 여서도패총 V층(B.C. 3,880~4,520)의 연대를 기준해서 영선동식토기의 변화

양상을 3단계로 시기설정이 가능하다. 제주도 영선동식토기의 상한 연대는 남해안 지역과 유사하게 B.C. 4,500 전후로 판단되며 하한연대는 중기단계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현재 발굴성과로 추론해 볼 때 중기의 일부 시점까지 영선동식토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B.C. 3,000을 하한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선동식토기의 전개양상을 3시기로 구분하여 설정한다.⁵⁾

1) I 기(전기 전반)

I 기는 용기문토기와 공반되는 자돌문토기가 확인되며 후반기에 압인횡주어골문호형토기가 남해 서부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계리유적의 자돌점열문토기, 저류지유적의 자돌점열문토기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절대연대는 여서도패총 V층 절대연대 측정값을 기준으로 남해안에서 영선동식토기가 시작되는 B.C. 4,500~B.C. 4,000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계리유적의 자돌점열문토기[도면 5-14]는 여서도패총 V층 출토 점열문토기와 시문방법이나 문양대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여서도패총에서 확인되는 횡주어골문토기와 제주산 태토로 제작된 각종 토기류는 제주도와 직접적인 교류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서로 교차편년하였다. 따라서 여서도패총 5층에서 측정된 B.C. 4,000을 전후한 시기에

5) B.C. 3,000 전후는 중기의 태선침선문토기 단계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출토예가 없어 필자는 영선동식토기가 중기 단계의 일정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예로 일부 유적에서 영선동식토기가 후기의 봉계리식토기와 동일문화층에서 공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영선동식토기와 봉계리식토기가 제주도내에서는 시간적 흐름속에서 연결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이미 영선동식토기의 횡주어골문토기가 유입되었고 용기문토기와 공반될 가능성이 높다. 사계리유적에서 횡주어골문토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용기문토기와 공반되는 점열문(자돌·압날문토기)토기는 영선동식토기로 판단된다.

2) II기(전기 중반)

II기는 B.C. 4,000을 전후하여 압인횡주어골문호형토기와 압인횡주어골문발형토기가 유입된 이후 기형이나 문양 시문형태에 있어서 변화하는 단계이다. 고산동굴에서 확인된 압인횡주어골문토기[도면 6-11]는 목도패총의 호형토기[도면 1-1]와 비교될 수 있다. 목도패총 IV층의 절대연대가 $4,910 \pm 130$ B.P. 전후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압인횡주어골문토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로 판단된다. 성읍리유적에서 확인된 압인횡주어골문발형토기[도면 6-10]도 남해안일대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동일한 기형과 문양대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용담동유적이나 사계리유적에서 확인되는 구순각목토기가 활발히 사용된다. 이 단계의 절대연대인 용담동유적 2-1호 수혈에서 측정된 $4,750 \pm 80$ B.P.(중심연대 B.C. 3,500)를 하한 연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기의 특징은 정연하게 시문된 압인횡주어골문의 영선동식토기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며 영선동식토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고산리동굴 호형토기나 성읍리유적의 발형토기와 같은 압인횡주어골문의 호형토기와 발형토기가 유행한다. 또한 구순각목이 무문양토기에 단독으로 사용된다.

3) Ⅲ기(전기 후반)

Ⅲ기는 온평리유적과 2기와 저류지 상층문화층이 해당되는데 절대연대는 B.C. 3,500~B.C. 3,000으로 예상되며 중기단계의 일정 시점까지 영선동식토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설정하였다. 유물은 Ⅱ기의 압인횡주어골문토기가 퇴화되어 횡주어골문과 수직문이 복합되거나[도면 6-19·20], 수직문으로 변화하여 온평리유적이나 저류지유적 출토품처럼 제주도에서만 확인되는 문양대로 변화한다[도면 6-12~15]. 토기의 특징은 구순각목은 세침선문과 결합하여 복합문을 이루고[도면 8-11] 온평리유적의 소형의 발형토기[도면 6-21]처럼 호형토기에서 발형토기로 바뀐다([도면 4-1]→4-2→4-3번으로 기형의 변화가 예상됨). 문양도 압인횡주어골문이 수직문과 복합되어 퇴화하거나 수직문만 확인된다. 또한 세침선문이나 호형토기의 기형도 자체적으로 변화하여 발형에 가깝게 변화한다. 따라서 압인횡주어골문토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제주도 영선동식토기는 3단계의 전개양상을 보이며 변화한다. I 단계는 자돌문계토기 중심의 영선동식토기가 유행하고, II단계는 횡주어골문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순각목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이다. III단계는 횡주어골문이 퇴화하여 수직문이나 복합문으로 변화하게 되며 구순각목은 단독문에서 복합문으로 변화하고 삼각집선문이나 단사선문, 사격자문의 세침선문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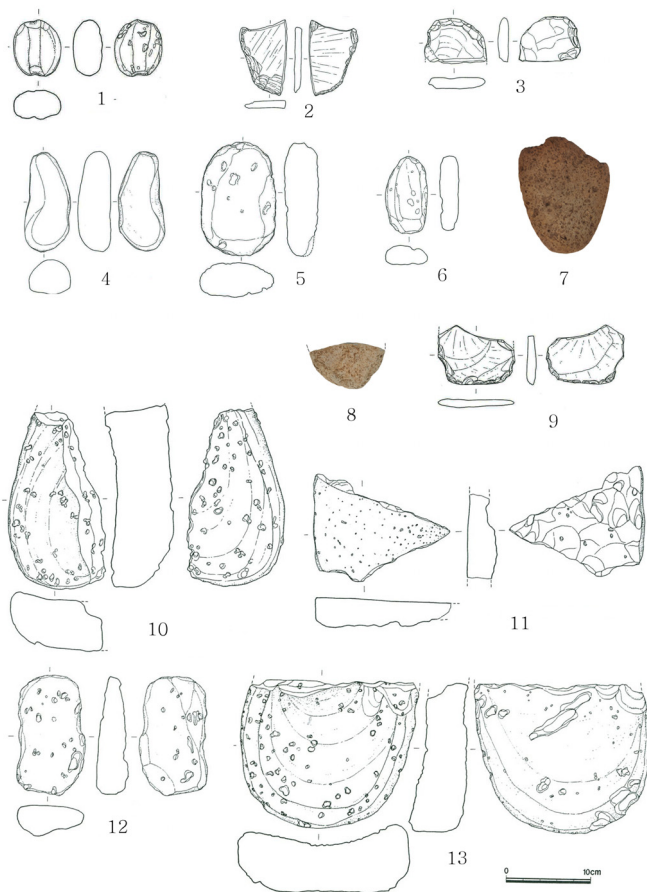
2. 영선동식토기 집단의 생업경제

영선동식토기를 사용한 전기단계의 생업활동에 대해서는 영선동식토기와 공반되는 석기 즉 당시의 생업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구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선동식토기를 주체로 하는 유적은 온평리유적, 도련동유적, 용담동유적이 있지만 온평리유적을 제외하면 유물의 출토수가 매우 적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어망추와 갈돌, 갈판, 고석, 흙돌, 석인석기가 확인되었다. 수렵구인 석촉이나 첨두기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로구인 어망추가 용담동유적[도면 10-1]에서 1점 확인되었다. 목재가공구와 석재가공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식료가공구인 갈돌[도면 10-12], 갈판[도면 10-10,11,13], 고석[도면 10-4~7], 석인석기[도면 10-2,3]의 비중이 높게 확인되어 단순화된 석기조합상을 보인다. 수렵구와 석재가공구와 목재가공구가 확인되지 않고 어망추가 1점에 불과하지만 어로생활과 관련하여 어망어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기의 비중은 대부분 식료가공구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전기단계인 영선동식토기 집단이 직접적인 수렵활동은 확인되지 않으며⁶⁾ 어망추를 이용한 어로활동으로 바다자원을 이용한 다. 그러나 석기 조성중에 지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골각기제작 즉 어로구 중 결합식낚시바늘이나 빗창 등의 제작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석기 중에서 식료가공구인 갈돌, 갈판, 고석, 석인석기의 비중이 높아 수렵이나 어로에 비해 채집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

6) 자연지형을 이용한 물이사냥이나 함정, 가축화 등 수렵생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단된다. 전기단계의 생업활동은 채집활동이 중심이 되고 어망에 의한 어로활동이 부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도면 10]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단계의 석기(1:용담동유적, 3~6 · 9~13:온평리유적, 7 · 8:도련동유적)

VI. 맺음말

남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심발형토기의 구경은 15~20cm, 35~40cm대의 두 부류로 분류되지만 온평리유적에서는 구경 10cm 내외의 소형 발형토기도 확인된다. 호형토기의 구경은 10cm로 남해안지역의 호형토기와 비슷하다.

제주도의 영선동식토기의 기형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되는 유물의 출토수가 적기 때문에 제주도의 영선동식토기의 기형을 단정하는 것은 현재로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온평리유적과 고산동굴유적의 호형토기와 소형의 발형토기와 성읍리유적과 용담동유적의 구경 30cm 이상의 첨저의 발형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저부의 형태는 대체로 원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확인된 영선동식토기는 고산리동굴유적과 온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압인횡주어골문호형토기가 대표적이며 그 외 유적에서는 파편으로 소량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전기의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중 온평리유적, 저류지유적에서 확인된 압인문토기는 끝이 둥글고 넓은 시문구로 장식한 토기로 횡주어골문에서 복합문양, 수직문양 등으로 독특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기형이 호형에서 발형으로 변화하는 등 한반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제주도식영선동식토기'라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압인기법의 수직문·중복수직문과·횡주어골문과 수직문의 복합문토기는 호형토기 기형의 횡주어골문토기가 유입된 이래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변화하면서 문양의 간략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주도의 영선동식토기는 자체적인 변화와 함께 남해안의 태선침선문

토기 단계인 B.C. 3000까지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해 서부지역의 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태선침선문토기는 돌산 송도패총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목도패총, 안도패총 등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에서 남해 서부지역과 제주도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서부의 도서지역에서는 영선동식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긴 시간폭을 가지는 토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기의 태선침선문토기가 앞으로도 출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기 태선침선문토기의 부재로 인해 제주도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도 공백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도 지역에서는 영선동식토기 Ⅲ기의 존속시기가 태선침선문토기 단계의 전반부까지 이어져, 남해안지역보다 긴 사용시기를 갖는다.

참고문헌

- 국립광주박물관, 1990, 突山松島 II.
_____, 2009, 安島貝塚.
- 국립진주박물관, 1999, 牧島貝塚.
- 김은영, 2010, 「영선동식토기의 편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65-67, 70~72.
- 김장석, 1991, 오산리토기의 연구-상대편년 및 타지역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34-37.
- 동양문물연구원, 2009, 제주삼화택지개발지구 가-II-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완도 여서도 패총.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수가리패총 I.
- 이동주,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8,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 학연문화사.
- 임학중, 1993, 남해안 신석기시대 초기의 토기문화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회관, 2006a, 성산~표선간 국도 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6b, 성읍민속마을 정의현 내아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부록 :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6c,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제주시 지방하천 수해복구 예정구역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_____, 2010a, 제주 강정동유적.
- _____, 2010b, 제주 사계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성읍리유적.

하인수, 2006,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5-73.

田中聰一, 2000, 한국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廣瀬雄一, 1985, 「櫛目文土器前期の研究-韓國南海岸地域における編年を中心として」, 伽倻通信 13・14, 60-69.

Abstract

A Study of Yeongseon-dong Style Pottery in Jeju

Park, Keun-Tae*

Yeongseon-dong style belongs to shaped stamped · stamped · impressed pattern pottery which is distributed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Among Yeongseon-dong style potteries in Jeju, Stamped pattern potteries in Onpyeong-ri and Jeoryuji sites are decorated with round and broad end instruments. Also, they are found only in Jeju varying from herring bone patterns to complex and vertical patterns. Moreover, the shape of the pottery is changed from jars to bowls. The potteries can be named 'Yeongseon-dong style pottery in Jeju type' since the potteries with the unique traits are identified only in Jeju, and the technique of stamped pattern is self-developed in Jeju. It is estimated that the potteries with stamped techniques, vertical · 1) duplicated vertical · herring bone patterns, and vertical complex potteries have emerged in Jeju changing autonomously in the simplification process of patterns since the jar-shaped potteries with herring bone pattern adopted.

Culture of Yeongseon-dong style pottery in Jeju type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concentrated by pottery with shaped stamped pattern. At the second stage, the pottery with herring bone pattern is representative and the pottery with notched strip on rim is also popular. At the third stage, the pottery with herring bone declines and changes into the pottery with complex or vertical pattern. In conclusion, Yeongseon-dong style

* Archaeological Institute of Jeju

pottery in Jeju type spreads out its tradition of shaped stemped · stemped pattern though the interaction of jars and bowls with herring bone pattern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assemblage of stoneware, associated with the potteries, is examined ;hunting implements are not discovered; many implements for food processing such as millstone are found ;and one of fishing tools, weight of netting is also identified.

Therefore, I believe that people in Jeju Island mainly depend on gathering for a living and fishing by net is incidental during the early Neolithic Age.

Key Words : The early Neolithic Age, Yeongseon-dong style pottery, herring bone pattern, Gathering, fishing

논문투고일 2010. 12. 12.

심사완료일 2011. 1. 20.

게재확정일 2011. 2. 11.